



Web Contents



2024년 04월 26일 04시 21분

작품세계

김우진은 한국 연극사에서 최초로 서구 근대극을 연구하고 영향을 받은 작가로 본격적인 근대극을 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학시절 연극에 심취하여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를 《학지광》에 발표하면서 시작된 평론활동과 극예술협회 결성, 국내 순회공연 등은 신파극 위주였던 조선의 연극계에 신극운동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에서 그는 한국 연극의 개척자로서 문학적 위상을 갖는다.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를 비롯한 여러 시는 표현적이고 낭만적인 자신만의 작법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지의 문제', 「생명력의 고갈」같은 수상록에서는 서구 철학에 바탕을 둔 진보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독일철학에 심취해 니체의 '초인사상'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 '초인사상'은 아일랜드의 조지 버나드 쇼에게 이식되어 구체화 되었고 그것이 김우진의 희곡 작품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쇼의 희곡 '인간과 초인(Man and Super)',을 김우진은 같은 제목으로 대학졸업논문을 써서 철저히 분석해냈다. 자신의 희곡 '난파'에서는 쇼의 극작기법을 차용하여 실험적인 작품을 썼다. '산태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 문학적 표현기법을 조화시키는 실험을 단행하였다. 김우진은 해박한 식견과 서구적 비평안을 가지고 당대 한국 연극계와 문단에 탁월한 이론을 제시한 평론가이며 최초 신극운동을 일으킨 연극운동가로 평가된다. 17세에 창작한 처녀작 소설 '공상문학'을 시작으로 30세 타계하기 전 마지막 희곡 '산태지'까지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내놓은 창작물은 시 48편, 희곡 5편, 소설 3편, 평론 17편, 논문 1편, 수상록 15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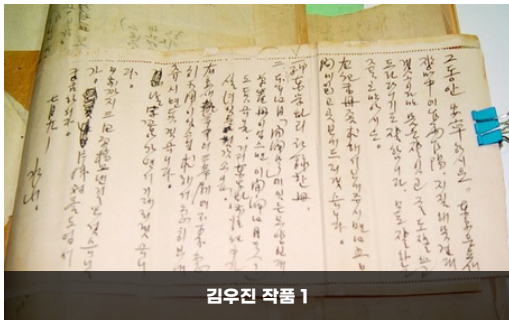
시

김우진의 시는 '이단의 처녀와 방랑자'를 포함해서 모두 48편이 있다. 1920년대 시단의 경향은 낭만주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투쟁의식, 전통적인 시조형식의 현대적 계승 등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와 달리 김우진은 표현 자체를 몹시 중시하고 표현을 곧 창조로 인식하여 독특한 자신만의 성향으로 시를 썼다. 그의 시는 개인적 삶을 중심으로 한 내면적 갈등과 절망을 낭만적, 주지적으로 노래한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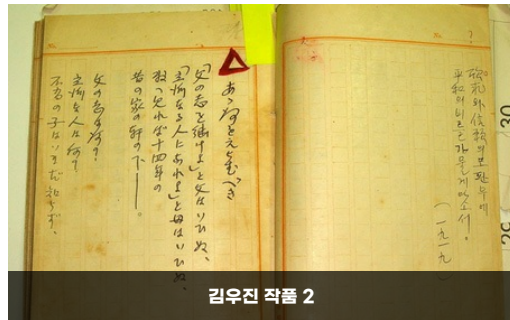
소설

김우진이 창작한 소설은 3편이다. 그 외 번역소설로 다논치오의 '영웅'은 미필고이다. '공상문학'은 17세에 쓴 작품으로 신소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습작한 것이다. 순자라는 여성이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하련당'이라는 소설가를 마을에 두고 점차 문학에 대한 열망과 근대적 사고방식에 눈뜨가는 과정을 다뤘다. '동굴 위에 선 사람'은 대학시절에 일문으로 쓴 소설이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여름, 동경 유학생 '임용길'이 친구인 남, 그의 여동생 '남신자'와 함께 동경 근처 여촌으로 요양을 간다.

각자의 성격과 사고의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사건의 전개보다는 심리 묘사에 치중하였다. '방련은 어떻게 해서 나병의 남편을 완쾌시켰나'는 "옛 조선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조선 성종 때에 전남 장성군의 방련이라는 여인이 나병에 걸려죽어가는 남편을 살려낸 이야기이다. 남편의 병이 악화되어 간호를 포기하고 함께 죽으려고 독약을 준비 해놓았는데 남편이 그것을 발음에 음료로 착각해서 마시고 오히려 되살아났다는 내용이다.



김우진 작품 1



김우진 작품 2

수상록

수상록(에세이)들에서 김우진이 보인 사상가로서의 기질은 다분히 진보적이다. 이탈리아의 가브리엘 다논치오(1863-1938)처럼 훌륭한 애국시인이 되고픈 열망을 품고 쓴 '타사찬장'을 제외하면 그의 글들은 '생명력의 추구'를 강조한다. 「곡선의 생활」, 「생명력의 고갈」, 「신정권」등을 통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가진 생명력에 대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자유의지란 '자유지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우주의 인과를 속에서 '살려는 의지'를 말한다. 또 그러한 자유의지는 '기록의 마력'에서 선인에 의한 기록만을 맹신하는 인습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출가」, 「A Protesto」에서는 출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집을 나오기까지 겪었던 심적 고뇌를 또 다른 자신을 화자로 설정하여 그와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쓴 것이 특징이다.

희곡

김우진이 남긴 희곡은 '두덕이 시인의 환멸', 「정오」, 「이영녀」, 「난파」, 「산태지」총 5편이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시인 이원영과 그의 처 그리고 연인의 박정자가 등장한다. 작가는 이원영의 성격과 행위에 관한 이미지를 '두덕이(두더기는 누더기의 목포 방언)같은 시인의 환멸'로 구체화시켰다. 「정오」는 플롯보다는 상황이 더 중시된 습작기의 짧은 희곡이다. 기혼세대나 사회현실의 모순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어느 여름날 오전에 어떤 도회지 공원에서 몇몇 낯선 사람들이 우연히 모여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이영녀」는 3막이다. 주인공 이영녀는 모성, 가정, 경제, 사회 문제 등으로 매우 힘든 삶 속에서 매을, 남성과의 동거 등으로 전전하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특히 매을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버나드 쇼의 '워렌부인의 직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난파」는 복잡하게 얽힌 유교식 가족주 속속에서 근대적 서구 사상을 지닌 한 젊은 시인의 정신적 몰락과정을 그린 것이다. 표현주의 문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서는 처음으로 그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산태지」는 김우진의 마지막 작품이다.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당시 연극계의 실정으로 보아 공연이 어려울 줄 알면서도 대담한 실험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 작품배경에 동학운동을 넣은 것은 당시에 드문 일이었다.

평론비평



김우진의 비평은 연극비평과 문학비평으로 나뉜다. 본격적인 비평활동은 1919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비평을 통해 서양의 연극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에서 당시 서양의 근대극이 지닌 제반 성격을 소개하고 『자유극장 이야기』로 앙드레안느의 자유극장 창설과 그 활동상, 연극사적인 업적을 설명했다.

『구미현대 극작가론』에서는 영국의 밀튼, 이탈리아의 피란델로 등 세계 여러 극작가의 생애와 작품, 연극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였다.

근대극 운동의 중요성과 방법론은 『우리 신극운동의 첫길』을 당대의 연극인 흥해성과 공동집필을 하여 나타내었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버나드 쇼에 대한 평은 『애란인(아일랜드 사람)으로서의 버나드 쇼』나 졸업논문으로 쓴 『인간과 초인(Man and Superman-a Critical of its Philosophy)』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논문은 당시 최초 본격적인 서구작가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그는 기존 문단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조선말 없는 조선 문단에 일언』에서는 문학의 보편적인 이론을 전제로 1920년대 초기의 흥미한 문단 풍토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고자했다. 당대 문단의 주축이며 와세다대학 선배이기도 한 이광수 문학에 대하여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질하라』라는 평론을 쓰기도 했다. 『아관 '계급문학'과 비평가』에서는 계급문학의 창작과 이를 지원할 비평가의 출현을 기대하는 바를 나타내었다.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